

은총의 샘이신 성령을 만나이다

신성근 신부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만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신다고 고백한다.¹⁾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원하신 참 하느님이시다. 성령은 파라클리토 즉 '보호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셨다(요한 14,16 참조).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졌다(로마 5,5 참조).

그리고 성령에 힘입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1코린 12,3)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또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이다(갈라 4,6 참조). 이러한 신앙의 인식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 즉 그리스도와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성령 없이는 하느님의 아들을 볼 수 없고, 성자 없이는 아무도 성부께 나아갈 수 없다. 성부를 아는 것은 성자를 통해서이며, 성자를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 신앙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시며, 또한 새로운 생명의 전달자이시다. 바로 이 생명은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²⁾

1. 성령의 칭호와 상징

1) 성령의 칭호

‘성령’이라는 칭호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고백을 통해,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하고 영광을 드리는 그분의 고유한 이름이다. 교회는 이 이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며, 새로운 자녀가 되는 세례 때 이를 고백한다(마태 28,19 참조).

그리고 ‘영’(靈)이란 히브리 말로 ‘숨결, 공기, 바람’ 등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숨결’,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의 새롭고도 초월적인 존재를 니코데모에게 암시하시며, 우리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바람에 비유하신다(요한 3,5-8 참조).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을 예고하고 약속하실 때 그분을 ‘파라클리토’라고 부르시는데, 이는 ‘곁으로 불러 온 분’ 곧 ‘보호자’라는 뜻이다(요한 14,16.26 ; 15,26 ; 16,7). ‘파라클리토’는 일반적으로 ‘변호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첫 변

1)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니케아 공의회(325년)는 당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256년~336년) 이단을 단죄하며, 삼위일체 교리를 핵심으로 하는 신경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아리우스 이단을 재차 단죄하며, 니케아 신경을 보완 발전시킨 신경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해서 완성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가 담긴 신앙의 진리를 요약한 신앙 고백문이 바로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다.

2) 가톨릭 교회 교리서, 683-684항 참조.

호자이시며(1요한 2,1 참조),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진리의 영”(요한 16,13)이라고 부르셨다.

한편 사도행전과 서간에서는 ‘성령’이라는 그분의 고유한 이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의 편지에서는 약속된 성령(갈라 3,14; 에페 1,13), 입양의 영(로마 8,15; 갈라 4,6), 그리스도의 영(로마 8,9), 주님의 영(2코린 3,17), 하느님의 영(로마 8,9.14; 15,19; 1코린 6,11; 7,40) 등의 칭호를 찾아볼 수 있으며, 베드로 사도의 편지에는 “영광의 성령”(1베드 4,14)이라는 칭호도 있다.³⁾

2) 성경 안에 나타난 성령의 예표 및 상징

(1) 물과 불

물은 세례에서 성령의 활동을 상징한다. 물은 새로운 탄생을 나타내는 유효한 성사적 표징이기 때문이다. 이는 세례수가 하느님 생명으로 다시 나는 우리의 새로운 탄생이, 성령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실제로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1코린 12,13).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또한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이시며(요한 19,34 ; 1요한 5,8 참조), 이 생수는 우리 안에서 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요한 4,10-14 ; 탈출 17,1-6; 이사 55,1 즈카 14,8 ; 1코린 10,4 참조).⁴⁾

물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탄생과 풍요를 가리킨다면, 불은 성령의 활동이 지닌 변화시키는 힘을 상징한다.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온”(루카 1,17)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루카 3,16) 분이심을 선포한다.⁵⁾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루카 12,49)라고 말씀하셨다. 성령께서는 오순절 아침 “불꽃” 모양의 혀들이 갈라져 제자들 위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채우신다(사도 2,3-4 참조).⁶⁾

(2) 기름 부음

기름 부음도 성령을 상징한다. 이 기름 부음의 진정한 의미는 성령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름 부음, 곧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스도(히브리 말로 ‘메시아’)는 하느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을 의미한다.⁷⁾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세워지셨다(루카 4,18-19; 이사 61,1 참조)

3) 가톨릭 교회 교리서, 691-693항 참조

4) 가톨릭 교회 교리서, 694항 참조

5) 엘리야 예언자는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햇불처럼 타올랐다”(집회 48,1).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로 카르멜 산 위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였다(1열왕 18,38-39 참조) 이 불은 닿는 것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을 상징한다.

6) 가톨릭 교회 교리서, 696항 참조.

7) 구약에는 주님께 ‘기름부음을 받은 이들’이 있었고(탈출 30,20-32 참조), 그중의 특출한 예가 다윗 임금이었다(1사무 16,13 참조).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하느님께 기름부음을 받으셨다. 성자께서 취하신 인성은 온전히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힘은 그리스도의 치유와 구원의 행위들 안에서 드러난다(루카 6,19:8,46 참조) 마침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로마 1,4; 8,11 참조). 마침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넘치게 부어 주시어, ‘온전한 그리스도’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다.⁸⁾

(3) 구름과 빛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 발현하실 때 구름은, 어두운 구름으로, 때로는 빛나는 구름으로 살아 계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계시한다.⁹⁾ 이러한 상징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성취하셨다. 성령께서 동정 마리아 위에 내려와 “감싸 주시어”(루카 1,35)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하셨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가 일어난 산에서 성령의 “구름이 일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루카 9,34-35)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사도 1,9 참조)¹⁰⁾

(4)인호(印號)

인호라는 상징은 기름부음과 가까운 상징이다. 과연 “아버지 하느님께서 날인하신”(요한 6,27)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성부께서는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날인하신다(2코린1,22; 에페 1,13; 4,30 참조)¹¹⁾

(5)안수

예수님께서서는 손을 얹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마르 6,5; 8,23 참조),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다(10,16 참조).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은 행동을 하였다(16,18 참조). 더 나아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주어졌다(사도 8,17-19 참조).¹²⁾

(6) 손가락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신다.”(루카 11,20 참조) 하느님의 율법은 “하느님께서 손가락으로”(탈출 31,18) 돌 판에 쓰셨지만, 사도들에게 써 주신 “그리스도의 추천서”는 “하느님의 영으로 새겨지고, 돌 판이 아니라 살로 된 마음이라는 판에 새겨졌다”(2코린 3,3).¹³⁾

8) 가톨릭 교회 교리서, 695항 참조.

9)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더불어(탈출 24,15-18 참조), 만남의 장막에서(33,9-10참조) 광야를 걷는 동안에(40,36-38 참조),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1열왕 8,10-12 참조) 구름이 덮었다.

10) 가톨릭 교회 교리서, 697항 참조.

11) 가톨릭 교회 교리서, 698항 참조.

12) 가톨릭 교회 교리서, 699항 참조.

13) 가톨릭 교회 교리서, 700항 참조.

(7) 비둘기

대홍수가 끝났을 때, 노아가 날려 보낸 비둘기는 땅이 다시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싱싱한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돌아온다(창세8,8-12 참조).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분 위에 내려와 머무르신다(마태 3,16 참조).¹⁴⁾

2. 성령 강림과 교회

1)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약속하신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내리셨다. 제자들은 그들 위에 내리신 성령을 가득히 받고 군중 앞에 나아가 힘찬 설교를 한다. 그리고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무엇 때문에 탄생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셨는지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는다(사도 2장 참조).

마침내 오순절 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파스카가 완성된다. 성령께서는 하느님 위격으로 나타나고, 주어지며, 전해졌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충만함에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신다(사도 2,33-36 참조). 그리고 이날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가 완전하게 계시가 되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느님의 나라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열렸다. 그들은 비천한 육신을 지녔지만, 신앙 안에서 이미 삼위일체의 친교에 참여하게 된다.¹⁵⁾

2) 성령과 교회

사도행전과 서간들에서 보면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발한 활동에 증언하고 있다. 나지안스의 성 그레고리오는 구약에서는 성부께서 계시가 되셨고, 예수님 탄생에서는 성자께서,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계시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초기 교부(敎父)들은 성령과 교회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밝혔다. 즉 교회가 있는 곳에 하느님의 성령이 또한 계시고, 하느님의 성령이 계시는 그곳에 바로 교회가 있다는 것이다.

(1)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명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궁전인 교회 안에서 성취된다. 이 공동 사명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성령 안에서 성부와 이루는 그리스도의 친교에 참여하게 한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당신의 은총으로 사람들을 도와 그리스도께 이끌어 주신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도록 정신을 열어 주신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하느님과 화해시켜, 하느님과

14) 가톨릭 교회 교리서, 701항 참조.

15) 가톨릭 교회 교리서, 731-932항 참조.

친교를 이루게 하시며, 그들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요한 15,5.8.16 참조)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들 안에, 특히 성체 안에 탁월하게 현존하게 하신다.¹⁶⁾

(2) 교회의 '영'이신 성령

성령은 교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영혼'이다. 성령께서는 신비체의 모든 지체에게 생명을 주고 참된 구원을 주는 활동의 원리가 되신다. 교회를 이루는 신비체의 모든 지체에게 위격적으로 현존하시고, 그들 안에서 영적으로 활동하시며, 신비체의 여러 지체가 서로 봉사 직무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체들을 양육하고, 치유하시며, 그들의 상호 기능을 유기적으로 조직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증언하도록 그들을 파견하시고, 성부에 대한 당신의 봉헌과 온 세상을 위한 당신의 전구에 그들이 참여하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성사들을 통하여 당신 몸의 지체들에게 거룩한 분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는 분이신 당신 영을 주신다¹⁷⁾

(3) 교회를 성화시키시는 성령

성령께서는 성화의 은총으로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하느님의 사랑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하시며, 영적으로 세 사람이 되는 힘을 주신다. 나아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초자연적인 덕행을 주시어, 사람이 구원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믿음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모든 피조물 위에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열정을 주신다.

(4) 교회를 유지하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라면, 성령께서는 교회가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는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고 실천하며, 모든 믿는 이들을 하나의 백성으로 유지하게 된다. 진리의 성령이시므로 교회가 구원의 진리를 믿고 실천하며, 선포하는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

(5) 교회를 일치시키시는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름으로써 하나가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이러한 일치는 유기체를 이루기 위한 다양성과 고유한 역할을 전제로 한 일치이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일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원리가 되신다.

16) 가톨릭 교회 교리서, 737항 참조.

17) 가톨릭 교회 교리서, 739항 참조.

(6) 믿는 이들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

믿는 이들 곧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르던 이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 주셨고, 이 성령께서는 항상 그리스도인과 함께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계신다(요한 14,15-17 참조).

이처럼 믿는 이들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께서는, 죽음에서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표징이 되며 구원의 담보가 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을 전파하는 일에 생명을 바칠 수 있었다.

3. 하느님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

사도 바오로는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에페 6,18)라고 하였고,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1코린 14,1)하며 당부하였다. 성령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신다(12,8-11 참조).

1)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

성령께서는 견진성사를 통해서 슬기(지혜), 통달(깨달음, 이해), 의견, 지식, 그리고 용기(굳셈), 효경, 경외심(두려워함) 등 일곱 가지 특별한 은사를 베푸신다.¹⁸⁾ 물론 이 은사들은 세례 때 처음으로 주어지며,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더욱 풍성해지고 확고해지는 것이다. 이 은사들은 우리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대로 따르게 해준다.

2) 공동선을 위한 은사

성령께서 베푸시는 이런 은사들은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사들은 모두가 교회공동체의 선·익을 위한 것이다(1고린 12,7 참조).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하는 공동 목표에 참여해야 한다. 신앙인은 자신의 능력을 다해서 이 은사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 또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고 신뢰하며, 서로 용서해 주며, 서로 가르치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이러할 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며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 주는 가장 큰 징표가 되는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18) '슬기'는 하느님과 하느님에 관한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은사다.

'통달'은 진리를 깊이 통찰해 잘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의견'은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판단하게 한다.

'지식'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게 해준다.

'용기'는 신앙생활 중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덕을 실천하게 해주는 힘이다.

'효경'은 자녀로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는 은사다.

'경외심'은 죄로 인해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까 봐 갖게 되는 두려움이다.

3) 성령께서 맺어 주시는 열매

하느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접목해 주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갈라 5,22-23)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자신을 버리면 버릴수록(마태 16,24 참조) 우리는 더욱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갈라 5,25 참조).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우리는 낙원을 되찾고, 하늘나라에 오를 수 있으며, 다시 하느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신뢰심이 생겨, 그리스도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빛의 자녀라 불리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성 대 바실리오, 성령론 15,36 참조).¹⁹⁾

교회는 답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활력을 주시어, 우리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참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는다.²⁰⁾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답합니다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1코린 2,11). 하느님을 계시해 주시는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살아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분이”²¹⁾ 우리에게 성부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신앙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만 성령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진리의 성령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신다.”(요한 16,13 참조) 참으로 하느님다운 이러한 숨김은,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요한 14,17),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께서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687항).

19) 가톨릭 교회 교리서, 736항 참조.

20) 한국 천주교 예비 신자 교리서, 91-92쪽 참조.

21)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